익산시, 농산물 선순환 유통체계 구축

48개 사업에 278억원 투입
농가 소득·안전 먹거리 역점
푸드통합지원센터 4월 착공

익산시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에 나선다.

익산시는 농가소득 향상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생산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와 관련 올해 1300여억원 농산물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48개 사업에 278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시는 먹거리 안전성 제고와 지역 내 소비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관리, 학교무상급식 지원 등 22개 사업에 23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총괄할 푸드통합지원센터 APC는 오는 4월에 착공된다.

이와 함께 규모화·전문화된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을 위해 9개 사업, 13억원을 투자한다.

탑마루 농산물 명품화를 통한 지역 내·외 농산물 홍보와 판매경로 발굴로 수도권 주요 백화점, 온라인, 수출 등 대량 소비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익산시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수박 자동 선별 시스템.

딸기, 블루베리, 마 등 신규전략 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주요 품목에 대한 철저한 공동선별·출하로 탑마루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기업 맞춤형 쌀 2만4000t 공급을 위한 품질관리와 기업과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 밖에도 활력 가득한 농촌만들기를 위한 마을 전자상거래 사업에 9억원을 투자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텃밭에서 소비하는 식탁까지 유통과정을 면밀히 살펴 농민들이 정성껏 키운 농산물이 제 값을 받으며 판로걱정 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비자들은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군산시,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등 국비예산 사업 32건 발굴

발굴 보고회 신규시책 70건 검토

군산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탄소저감을 위한 정책과 관련 사업 발굴에 집중하기로 했다.

군산시는 최근 내년 국가예산 발굴을 위한 보고회를 열고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의 대전환과 지속가능한 경제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새만금 개발의 내실화와 가속화를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도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국가사업 32건과 신규시책 70건을 발굴·검토했다.

주요사업으로는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3747억원)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3700억원) ▲무탄소 적용가능 엔진 및 핵심 기자재 개발(165억원) ▲노후산단 화학사고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61억원) ▲RE:WATER 사업(산업단지 공업용수 재활용 사업, 군산시 시범사업 1234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정부의 신산업 관련 정책기조를 신속히 파악하는 한편 각 부서 및 전문가들과 적극 공유하고 시민토론회 개최와 정책제안 등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의미있는 신규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 군산만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 차별화된 국가예산 사업발굴을 통해 시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정읍시,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10만원 지원

방역패스 적용 1500여 업소
내달 6일까지 1차 신청

정읍시가 코로나19 감염증과 오미크론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방역물품 구매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방역패스 의무 적용을 받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16개 업종 1500여개 업소다.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QR코드 확인용 단말기와 체온계,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첨부하면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신청 기간은 2월6일까지며 정읍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오는 2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10부제를 운영하며 27일부터 2월6일까지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다음 달 14일부터 2차 접수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소상공인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방역물품 지원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많은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풍수해 보험료 최대 91% 지원

고창군이 자연재난에 대비해 풍수해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최대 91%를 지원한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가 지원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며, 8개 유형의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다.

올해부턴 온실과 소상공인(상가, 공장)에 대해 79%로 상향된 정부지원율과 고창군의 자체 추가 지원을 통해 총 보험료의 최고 91%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고창군민의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7402명이다.

풍수해보험 가입 방법은 고창군이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사와 단체보험 가입방식으로 가입하게 된다.

보험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5개 민영보험사(DB손해,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해상, KB손해, NH농협손해) 및 고창군 재난안전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정수 고창군 재난안전과장은 "겨울철 대설과 강풍은 물론 태풍·홍수·호우 등 사시사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한다"며 "앞으로도 각종 재난안전시책을 통해 군민 안전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순창군, 고령층 위한 큰 글씨 납세고지서 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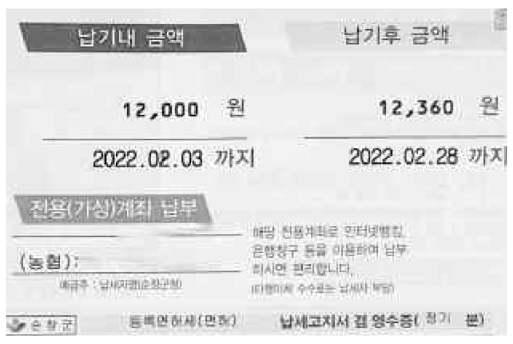
순창군이 고령층을 배려한 큰 글씨 납세고지서를 제작 배포해 눈길을 끌고 있다.

큰 글씨 고지서에는 납부 금액과 납부기한, 가상 계좌 등이 중앙에 배치돼 있다.

활자 역시 크게 인쇄돼 있어 고령자를 비롯해 누구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기존 고지서는 글자 크기가 작고 납부세액, 납부기한, 납부 계좌 등 주요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 고령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다.

군은 등록면허세 외에도 정기분 지방세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도 변경된 큰 글씨 고지서로 제작·발송할 예정이다.



순창군에서 제작한 큰 글씨 납세고지서.

순창군 관계자는 "맞춤형 세정운영으로 납세자 만족도를 높이고자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남원시 농촌·도시 빈집 정비…철거비 지원

남원시가 빈집으로 인한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농촌·도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사진〉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빈집에 대해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억6200만원을 투입해 농촌빈집 80동, 도심 주민공간조성사업 4동,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20동의 철거비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은 환경과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방치된 빈집정비를 통해 농촌경관 개선과 도시경관 개선은 물론,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빈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나 청소년의 일탕 등 유해환경을 없애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